데스크 시각

축제가 끝나고 난 뒤

박 진 현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20대 중반의 직장인 C는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게 취미다. 근사한 분위기의 카페나 소문난 맛집을 앵글에 담기 위해 장거리 여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의 '인생샷'을 찍는 노하우도 생겼다. 그런 그녀가 지난달 그동안 벼려온 광주비엔날레(4월7~7월9일)를 관람했다. 미술애호가는 아니지만 멋진 사진 한컷을 건지기 위해서다.

하지만 C의 야심찬 계획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독특한 구도로 촬영하기 위해 작품 앞으로 다가 갈때마다 번번히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전시장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이 작품 훼손을 우려해 손사래를 치며 저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두운 전시장 바닥에 흙을 뿌려 놓은 불레베즈웨 시와니의 작품 '영혼강림' 앞에선 초긴장해야 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마자 '흙을 밟으면 안된다'라는 자원봉사자의 목소리에 조심하다 보니 작품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고 한다.

젊은 관객 열광한 블록버스터전

물론 작품 보호를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당연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돌발 행위는 자제시켜야 한다. 하지만 C의 지적처럼 비엔날레 재단의 지나친 통제로 '위축된' 분위기에서 전시를 감상하기 힘들었다는 관람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깐깐한' 비엔날레와 달리 '인증샷'으로 재미를 본(?) 대형전시들이 있다. 지난 16일 막을 내린 서울 리움미술관 '마우리치오 카텔란:We'전과 서울시립미술관의 '에드워드 호퍼:길위에서'전(4월20~8월20일)이다. 두 전시는 자신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MZ세대의 '인증샷 문화'를 겨냥해 '사진 맛집 전시회' 등의 홍보 전략을 내세워 20~40대 관람객들을 불러 모았다.

이 가운데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 '무제'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핫한' 작품들이었다. 특히 포장용 테이프로 붙여놓은 바나나를 한 대학생이 먹어 치워 논란이 된 '코미디언'은 작가와 미술관측이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면서 더 화제가 됐다.

이처럼 카텔란전이 주목을 끈데는 글로벌 작가의 전시를 무료로 기획한 미술관의 배려가 컸지만, 미술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한 MZ세대들을 적극 끌어 들인 마케팅도 한몫했다. 실제로 26만명을 동원한 마우리치오 카텔란전은 20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30대(24%)와 40대(23%)가 그 뒤를 잇는 등 MZ세대가 75%를 차지했다. 누적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한 '에드워드 호퍼'전 역시 젊은층이 대거 찾고 있다.

이들 전시가 20~40세대와 통할 수 있었던 건 기획력 덕분이다. 현대미술의 주관객층인 젊은 관람객들의 트렌드에 맞춰 '편안한' 분위기에서 전시회를 그들만의 방식대로 '즐기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유하는 MZ세대의 문화에 주목해 1층 아카이브 전시장을 '오픈'해 누구든지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9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이후 최장기간의 국제미술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올해 비엔날레는 이슈메이킹이나 흥행, 전시구성 등에서 차별화된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술현장의 변화를 읽지 못한 재단의 매너리즘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995년 창설된 이후 올해로 14회째를 맞았지만 전반적인 운영 매뉴얼은 시대의 트렌드에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30년이 흐른 지금의 미술시장은 MZ세대가 주역으로 떠오를 만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근래 예술과 전시 관람을 즐기는 젊은층이 늘면서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족'이 늘고 있는 게 그 반증이다. 또한 비엔날레와 유사한 콘셉트의 현대미술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반드시 광주에 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미술계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부산현대미술관이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비슷한 주제인 '기후'를 테마로 개최한 '시네미디어-영화의 기후'(4월6일~8월6일)전이 대표적인 예다.

창설 30돌 광주비엔날레의 선택은

내년은 광주비엔날레가 창설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다. 강산이 세번이나 변한 시간이지만 아쉽게도 비엔날레 위상은 아트페어 등에 밀려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메가 미술이벤트를 연계한 광주시의 문화마케팅 부재는 뼈아프다. 부산시가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부산 방문에 맞춰 부산시립미술관의 일본 거장 '무라카미 다카시전'(무라카미 좀비)를 연장하는 등 타 도시의 '역동적인' 대응과 비교된다.

하지만 아직 광주에게는 기회가 있다. 30주년을 계기로 전시, 조직, 운영 등 대대적인 혁신을 꾀한 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미술축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 이젠 비엔날레 개최지라는 이유로 국제미술도시를 운운하는 건 멋쩍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비엔날레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출발선에 섰다. 미술시장의 달라진 지형, 비엔날레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30주년에 걸맞은 재단의 운영 등 미래 지향적인 로드맵을 '리셋'해야 한다. "광주는 왜 비엔날레를 하는가." 언제부턴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社說

'미술대전 대통령상 위조 거래' 낱낱이 밝혀야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 상장이 위조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목포경찰은 그제 전남예총 회원 등 목포 지역 예술인 아홉 명을 상대로 대통령상 수상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상은 공적에 대해 표창하는 '포상'(褒賞)과 달리 각종 경기·경연 등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시상'(施賞)이다. 수사 대상 예술인들은 개인전 약력에 대통령상 수상 기록을 기재하거나 SNS에 상장 사진을 올리는 등 수상 사실을 공개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지금까지 최소 두 명의 상장이 위조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이 지난 2019년과 2022년 받은 상장에는 대통령 직인과 행정안전부 장관 직인, 대한민국 국새까지 찍혀 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상장 모두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상훈' 포털 사이트에 수여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예술인들은 서울에서 열린 특정 미술대전의 주최사로부터 상장을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최 측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수상자들이 위조 사실을 알고 출품했는지 등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아직도 일부 예술 행사에서는 주최 측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 출품 비용을 받는 부적절한 폐습이 남아 있다. 수사 대상 예술인들도 주최 측으로부터 "우리 미술대전에서 입상하거나 협회 추천을 받으면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위조 상장인 줄 알고 구매한 것인지, 수상을 대가로 한 출품비 납부인지부터 가려내야 한다. 그 과정에 브로커들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위조된 수상 경력이 지자체의 지역 작가 작품 구매에도 활용됐는지 등에 대해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고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전액 물어내라는 정부

정부가 고(故) 김홍빈 대장 수색·구조 비용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도 광주시 산악연맹을 상대로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엊그제 정부가 광주시 산악연맹과 대원 다섯 명을 상대로 낸 구조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김 대장에 대한 수색 비용 100%(2500만 원)를 연맹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원 다섯 명이 헬기를 이용한 구조 비용 4500만 원은 대원들이 25%, 정부가 75%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김 대장 수색과 대원 구조 비용 등 전액(6800만 원)을 광주시 산악연맹이 부담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김홍빈 대장 2주기를 맞아 지난 15일 광주시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는 추념식과 '김홍빈 희망을 오르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김 대장은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를 딛고 7대륙 최고봉을 오른 데 이어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좌에 도전했다. 마침내 2021년 7월 19일 브로드피크 정상(8047m)에 오르며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14좌 완등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산 도중 조난을 당하고 말았다. 뒤이은 헬리콥터 수색과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대장은 '히말라야의 별'이 됐다.

정부는 국가의 위상을 높인 김 대장의 공적을 기려 체육훈장 청룡장을 추서한 바 있다. 그랬던 정부가 김 대장 수색과 대원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개인의 명예가 아닌 국위 선양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등반에 나섰다 사고를 당한 만큼 수색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정부의 부당한 항소는 철회돼야 한다. 장애를 극복하고 고산 등반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파하던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 대장의 숭고한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한밤의 데자뷔

고 성 혁
시인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기억을 갖는다. 영혼에 박혀 별이 된 그것은 가슴을 떠돌다 우리 삶의 여정 어디쯤에서 불쑥 우리를 꿈처럼 위무한다. 아, 온전한 사랑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지난겨울의 끝자락 나는 남은 생의 해거름이 될 가슴 먹먹한 서사를 만났다.

몇 마리 키우는 닭을 살피다 산골짜기 허방을 딛고 말았다. 도랑은 이 미터나 되었고 하늘을 보며 떨어진 탓에 돌멩이 위에서 허리가 꺾였다. 이웃 할머니도, 아내도 비명을 들을 수 없는 깊은 곳이었다.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뒤척이고 있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내에게 발견되어 부서진 몸뚱이를 119에 실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튀어나오는 신음. 병원에 도착해서는 짐짝처럼 실려 엑스레이와 MRI를 찍었다. 순식간에 삶이 엉켰다.

절망은 오래전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아버지도 낙상했었다. 섬에서 작은 배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어느 날 몇 마리의 생선을 낚았다. 술을 좋아한 양반이었던지라 잡아 온 우럭을 안주로 소주를 마셨고 종래는 취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마루에서 굴러 섬돌 위로 떨어졌다. 그때 나는 이십 대였고 아버지와는 태생의 업과(業果) 때문인지 오랫동안 소원해 있었다. 대학병원을 찾았을 때 아버지는 머리 양편 뚫린 구멍에 쇠사슬이 박혔고 그 아래 쇠뭉치를 매단 채 질끈 눈을 감고 있었다.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병구완하던 누이가 아버지의 허리를 모로 세우자 시커멓게 썩은 등이 드러났다. 아, 아버지 등에서 살아 꾸물거리는 것들. 경추를 다친 아버지는 결국 육 개월 만에 운명하셨다. 그렇게 아버지를 상기하며 내게 닥친 절망을 꼼꼼히 반추하고 있을 때였다. "요추는 바스러졌지만 천만다행 신경은 손상되지 않았네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처럼 되지는 않겠구나. 그 짧은 순간 나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죽음 앞에 선 아버지의 고독을 절감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그때부터였다. 누워 있어야만 했다. 먹어야 사니 누운 채 어구구, 소리를 내며 먹었고 비스듬히 등을 세우고 오줌을 누었다. 티브이 켜진 병동의 소란과 간호사들의 내밀한 대화. 한밤을 깨우는 신음소리들. 배불뚝이 아저씨의 코골이와 간이침대 위 혼곤히 잠든 아내의 꿈말을 타박하는 옆 영감의 구시렁거리는 소리. 입맛이 없다는 나 때문에 옷 속에 햄버거를 감춰 오던 아내의 발그레한 얼굴과, 저녁이면 물티슈로 내 발가락 새를 닦던 그녀의 흔들리던 흰 머리카락. 그리고 그 풍경을 관통하는 끊임없는 고통. 그렇게 이틀이 지났다. 집에 다녀온 아내가 사라진 안경을 끝내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널브러졌던 계곡의 차가운 느낌이 온몸을 덮치는 듯했다. 그 경황 중에 안부랍시고 전화한 아들놈이 병실의 시끄러운 티브이 소리를 듣고는 제 엄마를 타박했다. 딱 걸렸다면서. 다쳤다고 말할 순 없었다. 전화를 빼앗은 나는 늙었다고 술 한잔도 못 마시느냐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 병실은… 그렇게 새로운 감각을 일으키는 통각의 장이었다.

닷새가 지났다. 벌레가 기는 듯한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내 모양이 한밤까지 이어지자 부스스 어딘가를 다녀온 아내가 속삭였다. 샤워하러 갑시다. 샤워? 휠체어를 탄 채 링거대를 잡고 아내에게 끌려간 곳은 세면장 한편의 칸막이 샤워장이었다. 벽을 짚고 섰다. 척추 압박 슈트를 벗긴 아내가 몸을 발가벗겼다. 물을 뿌린 아내가 비누칠을 했다. 그 순간 느닷없이 묵은 기억이 솟구쳤다. 전율이 일었다. 아, 육십 년 전의 그날 저녁…. 다니시던 공장에서 붉은색 고무 대야를 가져온 날, 어머니는 코 묻어 반질거리는 내 다우다 점퍼를 벗기고 겨울바람에 갈라 터진 손등을 바라봤다. 시커먼 때가 덕지덕지 내려앉아 있었다. 길게 한숨을 내쉰 어머니는 데운 물을 대야에 붓고 그 안에 나를 앉히셨다. 누룽지처럼 뚝뚝 흘러내리던 때와 들썩이는 내 등. 그리고 철썩철썩 두들기시던 어머니의 손길. 그 겨울 밤 어머니의 수심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무렵 서산동 산꼭대기에서 바라봤던 배들을 기억한다. 나갔던 배는 반드시 항구로 돌아왔다. 삶을 마감하고 이제 흔적도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 돌아온 집의 참나무에 기대 그 시절 어머니의 고독과 지난봄 내가 만든 아내의 좌골신경통을 생각한다. 내가 돌아가야만 할 항구와 내 남겨진 삶의 궤적도 생각한다. 건너 숲이 석양에 일렁이고 있다.

기 고

클래식은 배워서 가는 길이 아니다

김 승 일
조선대 음악과 명예교수

"나는 클래식 음악이 참 좋긴 한데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담 쌓고 살아." 클래식을 전공하다 보니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옆에서 봐도 성향이나 기질이 참 감성적이어서 클래식에 쏘옥 젖어들 법도 한 사람인데 '도대체가 알 수 없더라'며 고개 절레절레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클래식? 그걸 감상하는데 아는 게 뭐가 필요해? 좋으면 들어 보고, 그렇게 들으면서 느끼면 되는 것 아닌가?"한다.

클래식이 좋긴 한데 알 수가 없다는 사람은 아마도 클래식을 들으며 만인이 명곡이라 일컫는 어떤 예술 작품의 메시지는 뭘까, 그 메시지를 알아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형이지 않을까 싶다. 정답(작곡가의 메시지) 찾기 형인 이들에게 조수미가 부른 '그리운 금강산'은 '지금은 갈 수 없는 조국의 절경 금강산에 대한 그리움을 부른 노래'라는 게 답일 터이다.

그나마 이 경우는 가사가 있으니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가사는커녕 제목도 없이 소나타 몇 번, 협주곡 몇 번 하는 그 음악, 그 클래식이라는 것의 메시지는 뭐란 말인가. 도통 알 수가 없으니 나는 음치이고 구제 불능이야 하고 체념해 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따지지 마! 그냥 들어 봐, 들으면 돼, 듣다 보면 알게 돼"라고.

클래식 음악의 제목은 몰라도 어쩌다 큰 맘 한 번 먹고 들어 보면 가끔 맘에 쏙 드는 좋은 대목을 발견하기도 한다. 물론 전혀 느낌이 오지 않는 대목이 더 많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럴 때면 혼자 생각해 보게 된다. "나만 클래식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나, 다른 사람은 이 대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증이 일어 한 번 더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고, 귀찮고 어렵다며 음악과 담을 쌓고 지내기도 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우와~ 미녀다. 준수한 청년이야. 참 선하게 생겼다. 책임감 강하고 아주 훌륭하게 보이던데?'라는 평을 때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런데 그 정답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생기면 미녀이고 어떻게 생기면 준수한 청년이고 그 기준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배운 바 없다. 그럼 타고 났더란 말인가? 그래서 다섯 살 때도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더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아마도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다 사람을 선택해야 할 스무 살 때쯤 되니 나름대로 잣대가 생기고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을 알아가게 되었듯이 음악의 아름다움도, 클래식 예술의 메시지도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사도 없고 제목도 없고 소나타 몇 번, 협주곡 몇 번 하는 클래식 음악도 무조건 자주 듣고, 같은 곡을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음악회장을 찾아다니며 접하기도 하다 보면 체험의 누적이 쌓여가면서 잣대가 생기고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는 게 클래식의 길이다.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클래식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필자도 오랫동안 클래식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초보 감상자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어 조금은 뿌듯하다.

클래식 감상에 정답은 없다. 무조건 달려들어 귀로 들어 보고, 느낌으로 들어 가면서 시작해 볼 일이다. 그렇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삶의 향기도 가꿔 보면 어떨까?

無等鼓

현수막 정치

정치권이 '현수막 정치'에 단단히 재미를 붙인 모양이다. 끊임없이 정쟁(政爭)을 일삼는 여야가 현수막을 통해 꼴사나운 길거리 정쟁까지 벌이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아파트 분양 등의 광고 현수막에 시달렸던 시민들은 이제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우스운 점은 매일 치고 받고 싸움만 하는 여야가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을 정당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을 합심해서 개정했다는 점이다. 당시 재석 의원 227명 중 204명이 찬성했다. 사사건건 싸움질만 하던 여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을 합친 셈이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 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15일) 등을 표기하고 준수만 하면 현수막은 허가·신고·금지·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신인과 비례대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표기했더라도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니면 철거 대상이다. 상업적인 현수막 또한 관할 지자체 허가가 없거나 지정 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이 때문에 현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 정책 홍보 등에 이용되어야 하는데도 상대 정당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소수 정당들까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현수막 공화국이 됐다.

광주시가 지난달 중순부터 열흘간 다섯 개 자치구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을 통해 모두 2만 5570건을 철거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현수막이 광주 도심에 내걸렸는 지를 짐작케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부터 현수막 정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뒤늦게 광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의 현수막 금지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상위법 때문에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현수막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불편해 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다시 법 개정을 통해 결자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주간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